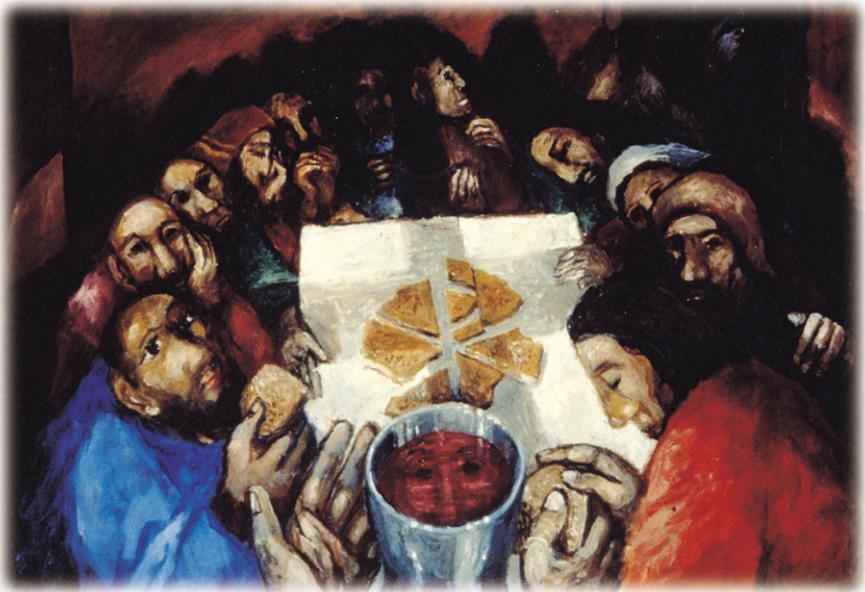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9년 10월호



천주교마산교구
www.cathms.or.kr

혼인의 소중함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어느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마주보며 어느 한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 그것을 알아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을 하십니다. “임자와 내가 함께 오래 살아왔는데, 백발이 다된 우리를 무슨 사이라고 부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쉼 틈도 없이 아주 큰 소리로, “우리 사이? 웬수!” 그 순간 방청석은 웃음바다가 되고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어 합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니...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주 자신 있게 내 답이 맞을 것이라는 투로, “평생 웬수!” 하고 대답합니다. 모두들 나가자빠질 정도로 배꼽을 쥔 채 웃어댁니다. 정답은 ‘백년해로’ (百年偕老)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평생을 서로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그 삶에 충실하는 결혼 생활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살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혼인의 의미를 되새겨 주십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협력자 관계를 맺고 있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모든 관계를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어 인간이 서로를 향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내면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였고, 그 바탕에서 서로 창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인간들이 맺는 계약을 넘어 창조적인 일입니다. 창조적인 일에는 헌신과 신뢰와 사랑이 그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혼인의 바탕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결혼 생활, 거룩한 혼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부사랑이다. 부부사랑은 하느님과 세상의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반영한다. 혼인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에페5, 32).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첫째로, <항구한 사랑>이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부부들도 죽는 날까지 사랑이 식거나 변하는 일 없이 살아야 한다.

둘째로, <충실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교회에 충실하셨다. 성체성사의 흘러넘치는 은총으로 늘 우리를 위해 당신 전부를 내어주신다. 이는 오직 우리만을 위한 독점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배타적인 사랑이다.

셋째로, <몰아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실하게 나를 헌신하는 희생을 필요로 한다. 성별의 차이나 외적인 아름다움, 호기심만으로는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충실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사랑은 <공손한 사귄>이어야 한다. 좀 더 확고한 반석 위에 혼인생활이 이루어져야한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의 일치이다. 부부들은 서로의 욕망을 채우고 만족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배우자로서 존경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난날의 혼인생활과 가정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 왔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 막 추석 명절을 지낸 우리들이다. 명절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점 보다는 사랑과 감사의 순간들을 더 기억하도록 하자.

진정한 행복

우리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짚신 장수가 있었는데 손가락이 갈퀴발이 되도록 짚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아도 겉보리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태평이어서 늘 노랫소리에 해만 지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곱니다. 바로 이웃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부자 노인이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못 고치는 올빼미 병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웃 짚신장수의 코고는 소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짚신장수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게 무슨 걱정이나며 장에 가면 안파는 것이 없는데 잠이라고 못 사겠느냐고 대답합니다. 물론 부자 노인은 짚신장수의 말을 사실대로 믿은 것은 아니지만 위로의 말이 고마워서 돈 500냥을 주고 잠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찌된 셈인지 짚신장수의 집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노랫소리도 코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후 짚신장수가 부자를 찾아와서 도로 돈을 내놓으면서 애원을 합니다. “영감님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제발 이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이것을 지니고 부터 집을 살까, 소를 살까, 장사를 할까, 이 궁리 저 궁리하게 되고, 도둑이 무서워 품에 안고 자다가 땅에 묻었다가 하다 보니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가난할 망정 열심히 일하면서 잠이나 실컷 자는 게 행복하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제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루가 12,15참고)는 사실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의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 보다 경건하고 영적인 생활을 위한 적극적 의지로 가득 찼지만, 최종적으로 재산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하고 다시금 현실로 돌아옵니다.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신 분,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 나눔으로써 부요해지는, 버리고 떠남으로써 영원해지는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이라면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 마음속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 젊은이의 재물과 같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아, 간직하려다 보니 늘어나는 재물과 같습니다. 결국 포기 못한 채 끄끙 짊어지고 가는 삶이 애처롭게 보입니다.

참되신 하느님!

당신과 홀로 있기 위하여...

신발을 벗어 놓습니다 - 나의 욕심과 야망을

시계를 풀어 놓습니다 - 나의 금쪽같은 시간과 예정표를

안경을 풀어 놓습니다 - 나의 고집스러운 견해를

펜을 내려 놓습니다 - 나의 일들을

열쇠를 내려 놓습니다 - 나의 안전을

하느님, 당신과 함께 하며...

당신의 길을 가려고 신발을 신습니다.

당신의 시간 속에 살려고 시계를 채웁니다.

당신의 세계를 보려고 안경을 씁니다.

당신의 생각을 적으려고 펜을 힘껏 칩니다.

당신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집어 듭니다.

선교는 말과 행동으로

시월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노라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한 어느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목주기도의 성월, 기도의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우리는 하느님을 증거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교의 달, 오늘 우리는 전교주일을 맞이하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전교란 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믿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같이 교리도 잘 모르고, 더구나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하면서 전교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도 전교의 결과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는 우리 지역 사회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도 전교의 결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의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바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교(선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의 사명을 지니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본성)이며 우리 신앙인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말과 행동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믿음·사랑·희망의 삶,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으로부터 자비를 풍성히 받고 있

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비에 응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어떤 처지에서도 오직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삶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이런 믿음·사랑·희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불신과 증오 그리고 절망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작은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을 데리고 시내에 전교하러 나갔다. 그러나 전교는커녕 누구에게 말도 건네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시내의 크고 작은 길을 오가다가 그냥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동행했던 제자가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스승님, 이렇게 시내만 돌아다니다가 그냥 수도원으로 돌아가면 전교는 언제합니까?” 라고 물었다. 성인 왈, “우리는 이미 길을 걸으면서 전교를 한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았으며, 우리의 <행동>을 보았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교이다. 만일 우리의 <걸음걸이>로 전교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떠들면서 다닌다 하더라도 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바로 하느님을 증거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성인의 말씀은 전교의 영성(靈性)이 메마른 오늘 날의 우리에게 짙은 가을 향내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해마다 묵주기도의 성월에 맞이하는 전교주일이다. 기도의 계절. 이제 우리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진다. 바로 우리의 얼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걸음걸이가 기도로 충만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전교의 영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오늘이다.

따라 나선다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의 길에 이르는 어느 맹인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리코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맹인 바르티매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더듬더듬 지팡이를 앞세우고 군중이 모인 곳을 찾아옵니다. 예민하게 발달된 귀로 군중들의 소란한 음성 사이로 나지막히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하여 목청껏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외침 속에는 평범한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피맺힌 한이 서려 있습니다. 군중들의 따가운 꾸짖음을 개의치 않을 만큼 절박한 생존의 절규입니다.

사랑과 연민이 넘치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한마디 선언으로 맹인은 눈을 뜨고 그동안 상처로 뒤엎힌 마음의 치유와 함께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나선 맹인 바르티매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 나선다>라는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계시는 곳, 내가 싫어하는 곳, 역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고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도 내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되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그분만이 나를 전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전폭적인 신뢰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 힘, 내 능력만 믿고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박한 열성과 정성을 좋아하신다. 수년간 부인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찾은 여인, 들것 채로 지붕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온 중풍병자, 편잔을 맞으면서도 마귀를 쫓아내어 주시기를 애절한 이방인 여인 등... 오로지 당신께 최후로 유일한 기대를 걸고 온마음 다하여 달려온 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서는 물리치시지 않으셨다.

어느 할머니 한분이 젊은 사제에게 가끔 미사를 청하였다. 슬하에 자식은 없었지만 많은 대녀들을 가졌던 할머니는 시시때때로 그들을 보살피 왔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였다. 이러한 할머니에게 대녀들은 가끔 용돈도 드리면서 자신들을 위해 미사라도 봉헌해줄 것을 청하곤 하였다. 할머니는 용돈을 아껴 모아 미사 예물을 준비하고 젊은 사제에게 들고 와선, 그때 마다 대녀들의 각각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사 지향을 몇 번이고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곤 돌아갔다.

오랜 냉담을 한 가정을 위해서는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속 썩히는 남편이나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 가게를 연 집의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식이 대학 입시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었다. 그 젊은 사제는 미사가 개인의 사사로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님을 누차 강조했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통하지를 않았다. 그저 열심히 미사만 봉헌해 달라는 것이었다. 행여나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돈으로 사려하나 싶어 없짱해 했으나 할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모질게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는 할머니의 정성이 너무 소박하고 지극하였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아니고 오직 대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무사하기만을 한결같이 빌며 쫓아다니는 그 할머니의 발걸음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숭고함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들을 딱히 여기시면서도, 병자들이 달려왔을 때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어 안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소박하고 겸손한 정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느님은 정에 약하시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9번 “부드러운 주의 손이” 1, 2절을 부릅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 주님, 저희들이 주님 나라의 성실한 일꾼이 되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일꾼



일꾼



포도밭



배신자

하느님 말씀

마르코 12,1~12

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활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2 포도 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3**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4**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5**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 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 버렸다. **6**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7**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회끼리 말하면서, **8**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 **9**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 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10**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1** 이는 주님께서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12**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진행자 어느 분이 마르코 복음 12,1-12절을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배신 -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

가나안 땅은 거위가 높지 않은 산들이 연이어진 산악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 산악 지방에서 살았다. 그래서 많지 않은 평지에서는 곡식을 경작하고, 언덕이나 산등성이에서는 포도를 경작하였다. 그러기에 포도를 심으려면 가능한 한 기름진 곳을 골라야만 했다. 또 돌이 많기 때문에 땅을 갈면서 끊임없이 자갈들을 골라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포도밭을 일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설비들도 갖추어야 한다. 여우나 멧돼지 같은 들짐승, 그리고 도둑을 막기 위해서 돌로 담을 두르거나 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탐을 세워야 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복음을 읽으면 이 비유말씀이 좀 더 급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은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탐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그 소중한 밭을 맡기고 떠나간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포도밭. 여기에 소작인들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기로 약속하고 밭을 맡기고 떠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의 길을 간다. 욕심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다.

진행자 —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포도밭은 어떤 것입니까?

—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포도밭에서 살아가는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쁨의 열매를 주님께 감사하며 당연히 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포도밭의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61번 “나는 주님 포도밭” 을 부릅시다.

사랑의 육각수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모여 앉습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주세요.(요한복음 4,6-14.)

진행자 이번엔 다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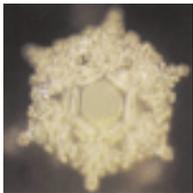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① 성경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육각수'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함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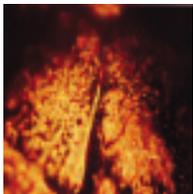
<사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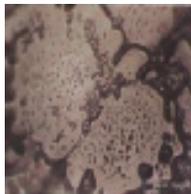
<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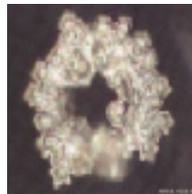
<망 할 놈>



<바 보>



<기 도 전 물결정>



<기 도 후 물결정>

사랑의 육각수

『물을 담은 알고 있다』라는 책의 저자인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는 우연히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컵에다 똑같은 물을 담아두고 한쪽에는 '사랑', 다른 한쪽에는 '바보' 라는 글자를 붙여놓은 후에 물의 결정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 이라는 말을 보여준 물에서는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이 나타났고, '바보' 라는 말을 보여준 물에서는 결정이 찌그러져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내용은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를 한 후의 물의 결정 변화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는 결정의 모양을 갖추지도 못하던 그런 물이 기도를 한 후에는 아름다운 결정이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종류의 언어와 마음과 현상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70~80%는 다름 아닌 물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 떠도는 공기 안에도 수없이 많은 수증기, 즉 물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기도는 서로의 몸과 우리 가정에 떠돌아다니는 나쁜 물들을 건강한 육각수로 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생각 나누기

- ① 물의 결정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돌아가면서 나눠보세요.
- ② 우리 가족의 물들을 사랑의 육각수로 바꾸기 위해 실천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진행자 물은 계속 순환합니다. 한 사람의 물은 자기 자신만의 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온 세상, 온 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실천합시다

- ① 투명한 유리컵 2개를 준비한다.
- ② 한쪽 컵에 '사랑' 이라는 글자를, 다른 쪽 컵에는 '바보' 라고 써서 붙인다.
- ③ 각각의 컵 안에 똑같은 밥을 반 정도 넣은 후 랩으로 입구를 막는다.
- ④ 집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약 50cm 간격으로 나란히 두 컵을 놓는다.
- ⑤ '사랑' 컵을 볼 때마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밥에게 전달한다.
- ⑥ '바보' 컵을 볼 때마다 어둡고 나쁜 마음을 밥에게 전달한다.
- ⑦ 약 2주 후에 두 컵에 들어있는 밥을 비교해본다.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세요.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복음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 절부터 ...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리나라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